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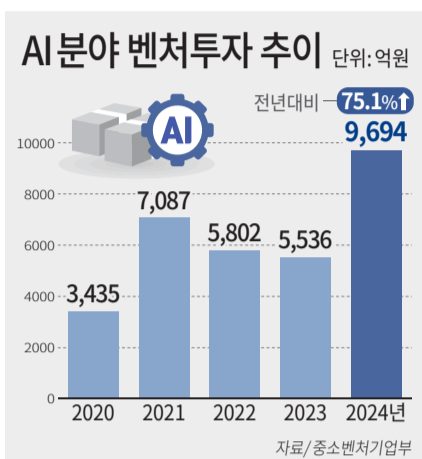
↑ 코스피 2334.23 (+6.03)	↑ 코스닥 658.45 (+7.15)
↑ 금리 (미국 9년) 2.420 (+0.015)	↑ 환율 (원-달러) 1476.35 (+8.55)

관세 쇼크에
비트코인
8만 달러 붕괴
02



韓 AI 벤처투자자 75% 늘었지만 美 등 경쟁국 대비 걸음마 수준

韓 작년 AI분야 벤처투자자 9694억
개발능력 상위지만 환경은 35위
글로벌AI 100대 기업에 韓 전무
미국 59곳, 중국 10곳, 영국 7곳



한국이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미래 먹거리인 딥테크(Deep tech) 분야에서 미국, 중국 등 선발 경쟁국 대비 투자나 환경이 한참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시장 한파에도 딥테크에 돈이 몰리고 있지만 민간 투자만 놓고보면 미국과 비교해 약 50분의 1, 중국의 약 6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글로벌 AI 100대 기업'에 한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미국은 59곳, 중국은 10곳, 영국은 7곳 등이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8일 내놓은 '2024년 딥테크 10대 분야 벤처투자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AI 분야 벤처투자는 9694억원(6억5815만달러)으로 전년의 5536억원보다 75.1% 급증했다. AI 분야에는 딥테크 10대 분야 중 전년대비 가장 많은 4158억원의 투자금이 집중됐다. AI에 대한 벤처투자는 2020년 당시 3435억원에서 2021년 7087억원, 2022년 5802억원을 각각 기록하다 지난해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AI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1655억원이 몰린 'AI 연산·처리 부품/장치 제조·설계'가 전년(423억

원)보다 무려 290.9% 늘었다. 또 'AI 구축·관리, 관련 정보 서비스'도 3880억원이 집중되며 전년(1814억원)에 비해 113.9% 증가했다. 전체 투자금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유치한 분야는 'AI SW 개발 및 공급'(6605억원)이었다. 2023년도에는 4731억원으로 1년새 39.6% 늘었다.

하지만 경쟁국 대비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발간한 '2024년 인공지능 글로벌 트렌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민간의 AI 투자 규모는 총 96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국이 672억 달러로 중국(78억 달러), 영국(38억 달러) 등을 압도적으로 앞섰다. 13억9000만 달러가 투자된 한국은 이스라엘, 캐나다, 독일, 인도, 프랑스에 이어 9위에 머물렀다.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합한 금액도

마찬가지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지난해 발간한 '글로벌 정부·민간 분야 AI 투자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874억 1000만 달러), 유럽연합(134억9000만 달러), 중국(112억8000만 달러), 영국(72억 달러), 일본(34억4000만 달러), 캐나다(34억2000만 달러) 등에서 AI 투자가 두드러졌다. 한국은 일본과 캐나다보다 뒤쳐졌다.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말 발간한 'THE 현안-글로벌 AI 기업 지형도' 인포그래픽을 살펴보면 글로벌 AI 100대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은 '제로'다.

일본(사카나AI), 대만(퍼펙트), 아랍에미리트(TII), 오스트레일리아(캔바), 사우디아라비아(SCAI), 이탈리아(SpazioDati Srl)가 100대 기업에 하나씩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수출입은행이 영국의 토터스미디어(Tortoise Media)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AI 사업 환경은 전세계에서 35위, 상용화 수준은 12위, 인재는 13위에 각각 머무르고 있다. 그나마 개발능력(3위), 정부전략(4위)이 상위권에 올라있다.

한편 중기부 집계 결과 AI를 포함해 시스템반도체, 로봇 등 '딥테크(Deep tech)' 분야에 지난해 몰린 벤처투자금은 총 3조6324억원이었다. 이는 전년대비 33.7% 증가한 수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원달러 환율 증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6.03포인트(0.26%) 오른 2334.23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15포인트(1.10%) 상승한 658.45,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4원 오른 1473.2원에 마감했다. 원화값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다. /뉴시스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기대이상 갤S25 덕에 6.6조 깜짝 영업이익

스마트폰 흥행·메모리 출하 증가
매출 79조... 분기기준 역대 최고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6조6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을 거뒀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25' 시리즈의 흥행과 메모리 출하 증가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1~3월) 연결 기준 매출 79조원, 영업이익 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84% 증가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영업이익은 0.15% 소폭 감소하며 사실상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4.24%, 영업이익은 1.69% 늘었다. 이번 실적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최근 집계한 영업이익 컨센서스 4조96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평가된다.

사업 부문별 세부 실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모바일경험(MX) 부문의 영업이익이 약 4조4000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월 출시된 갤럭시S25 시리즈가 미국과 중남미 등에서 흥행하며 스마트폰 실적을 끌어올렸고, 미국의 관세 정책 우려로 인한 선주문 수요 증가도 실적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영향으로 디스플레이, 가전 부문까지 동반 호조를 보였다는 평가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범용 메모리 수요 회복과 중국의 소비 진작책 '이구환신'(노후 가전 교체 보조금) 효과로 출하가 확대됐다. 메모리 가격 회복세도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시스템반도체는 고객 유지 부진으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며 약 2조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반도체 전체 영업이익은 약 1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1분기를 저점으로 삼아 2분기부터 본격적인 반등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수요 확대가 하반기 실적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부문을 총괄하는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빠르면 2분기 중 HBM3E 12단 제품을 양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외 변수도 존재한다. 미국 정부가 베트남과 멕시코 등 생산지에서 제조된 스마트폰과 가전에 고율의 관세를 예고하면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이 베트남에서, 가전의 상당수가 멕시코에서 생산되고 있어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이번 1분기 실적 호조가 관세 이슈에 따른 일시적 선주문 효과라는 분석도 있다.

/이혜민 기자 hyem@

경상수지 흑자 행진... "내달부터 관세 영향"

2월 경상수지 71.8억 달러 기록
車·정보통신기기 중심 수출 증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22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했지만, 수출이 더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수출은 반도체가 감소했지만, 승용차·정보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경상수지는 71억8000만 달러 흑자였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2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상수지는 국가가 외국과의 거래에서 벌어들인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뜻하는 것으로 한 나라의 기초체력을 나

타낸다. 지표로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한다.

2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는 81억8000만 달러 흑자로, 한달 전 25억 달러와 비교해 흑자 폭이 확대됐다. 수출은 537억9000만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3.6% 증가했고, 수입은 456억1000만 달러로 1.3% 증가한 영향이다.

송재창 금융통계부장은 "반도체 수출이 일시적 감소했지만, IT품목의 수출이 지속됐다"며 "비IT 품목의 수출도 늘어나며 흑자 흐름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서비스수지는 32억1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돼 적자 규모가 전월(-20억

6000만 달러)보다 확대됐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는 겨울방학 해외여행 성수기가 종료되고, 1월 설 장기 연휴의 기저효과 등으로 출국자 수가 줄어들며 같은 기간 16억8000만 달러에서 14억5000만 달러로 적자폭이 줄었다.

한편 이날 송 부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은 4월이 되어서야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3월 상품(수출·수입) 수지의 흐름을 보면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에서 3월 철강·알루미늄 관세, 4월 상호관세, 5월 자동차·부품 관세 등을 내놓고 있는 만큼 4월부터 글로벌 무역이 둔화하고, 대(對)중 수출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메트로 한줄뉴스



▲진성준, '계엄피해구제 특별법' 발의... "국민 트라우마 등 치료 지원" /사진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 韓 재판관 지명에 "인사청문회 요청 안받는다"

▲안철수, 4번째 대권 도전... "이재명 이길 후보 선택해달라"
▲국민의힘, 이재명에 "말 바꾸지 말고 3년전 개헌 약속 지켜라"

▲한덕수 기습에 당한 민주당... "내란 세력 현재 장악 시도"
▲민주당 "韓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지명에... 권한쟁의·가처분 검토"